

# 『難經·七十五難』에 대한 연구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生理學교실<sup>1</sup>

김현정<sup>1</sup> · 강정수<sup>1</sup> \*

## Study on the Seventy-fifth Question of 『Nan-gyeong(Classic of Difficult Issues, 難經)』

Kim Hyun-jung<sup>1</sup> · Kang Jung-soo<sup>1</sup> \*

<sup>1</sup>Dept. of Physiolog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aejeon University

Considering the opinions of annotators, the remedy about excess of east and deficiency of west from 「the seventy-fifth question」 can be arranged as follows.

「The seventy-fifth question」, with 「the sixty-ninth question」, explains excess and deficiency of mother and son. Abatement of fire and invigoration of water[瀉火補水] in the excess of wood and deficiency of metal[木實金虛] presents a remedy, which has been applied in herbs and medicine application henceforth. 「The seventy-fifth question」 is a unique theory from 『Nan-gyeong(難經)』, and does not continue the theory of 『Hwangjenaegyeong(黃帝內經)』.

「The seventy-fifth question」 mentions the relationship of excess and deficiency of the five elements and five viscera, but does not mention excess and deficiency of invigoration and abatement of the meridian.

Remedy from abatement of fire and invigoration of water[瀉火補水] in the excess of wood and deficiency of metal[木實金虛] is an abnormal, temporary and extraordinary method. This remedy is applied in Saam acupuncture[舍巖鍼] as A-variation form. The process where Son allows excess of mother[子能令母實] and mother allows deficiency of son[母能令子虛] in the abatement of fire and invigoration of water[瀉火補水] is a mechanism, not a remedy.

Generation after generation, medical practitioners can be classified into those that claimed abatement of fire and invigoration of water[瀉火補水] because of the relation with excess of liver and deficiency of lung[肝實肺虛], abatement of heart(瀉心) due to the excess of liver(肝實), or invigoration of Eum and abatement of Yang[補陰瀉陽].

**Key Words** : Classic of Difficult Issues(難經), the seventy-fifth question(七十五難), excess of wood and deficiency of metal(木實金虛), abatement of fire and invigoration of water(瀉火補水).

## I. 緒論

『難經』 침법편<sup>1)</sup>들은 補瀉法, 刺井瀉榮法, 補母瀉

\* 교신저자 : 강정수. 대전시 동구 용운동 96-3 대전대학교  
한의학대학 생리학교실.

E-mail : omdkjs@dju.kr Tel : 042-280-2617.  
접수일(2009년 10월 25일), 수정일(2009년 11월 20일),  
게재확정일(2009년 11월 22일)

子法, 補水瀉火法, 子母迎隨補瀉法 등 鍼刺補瀉法の 운용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는데, 이들 難을 『內經』과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첫째 『內經』의 이론을 부연·심화시켜 계승한 경우, 둘째 『內經』의 이론을 기초로 새로운 독창적인 이론을 제시한 경우, 셋째 『內經』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이론을 제시한 경우 등으로 나눌 수 있다<sup>2)</sup>. 따라서 『難經』은 서지학적으로 『內經』을 연구하기 위한 입문서이고, 주석서이며, 『內經』의 핵심을 정리한 중요한 서적이기도 하지만, 『內經』을 뛰어 넘는 독창성에 그 特長이 있다<sup>3)</sup>.

특히 「六十九難」은 病의 허실과 五行母子相生의 법칙에 근거하여 ‘虛者補其母 實者瀉其子 不實不虛以經取之’와 ‘當先補之 然後瀉之’의 치료원칙을 제시하였고, 「七十五難」은 五行生克이론을 운용하여 五臟 虛實의 치료법칙을 제시하였으며, 아울러 木實 金虛에 瀉火補水해야 함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sup>4)</sup>. 이들 難에서 제시한 子母補瀉法은 『難經』만의 독창적인 이론으로, 陰(臟), 陽(腑) 오행의 상생과 賊邪관계를 肘膝관절 이하에 있는 經脈의 오행 속 성穴과 결합하고 刺鍼하여 氣血의 허실성쇠를 조절하는 오행침자법<sup>5)</sup>과, 오행의 상생관계를 통한 自經, 他經보사법에 「七十五難」의 相克관계를 결합하여 自他經에 補瀉穴을 취하는 사암침법<sup>6)</sup> 등 후대 鍼灸法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sup>7)</sup>. 그러나 「六十九難」의 虛則補其母 實則瀉其子과 「七十五難」의 ‘子能令母實 母能令子虛’ 이론이 논리상 서로 배치되는 면이 있고, 또한 본문 중 ‘欲令金不得平木’에서 瀉火補水를 하면 金이 平木을 할 수 있다고 하는 醫家와 平木

을 할 수 없다고 하는 醫家들이 있어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한의계에서는 「六十九難」과 「七十五難」에 대하여 장부허실에 따른 침구보사법<sup>8)</sup>, 오행침법 운용<sup>9)10)</sup> 등 주로 침구학적 관점에서 비교 연구되어 왔으며, 오행 生克을 중심으로 機轉과 治法 측면에서의 연구는 없었다.

이에 저자는 「七十五難」에서 논급한 문제를 句節別로 나누고 역대 의가의 주석을 중심으로 살펴본 바, 지견을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 II. 研究方法

1. 『難經·七十五難』에 대한 본문은 『難經本義』<sup>11)</sup>를 사용하였다.
2. 관련 서적으로는 楊上善의 『黃帝內經太素』, 王九思의 『難經集註』, 張世賢의 『校訂圖註難經』, 徐大椿의 『難經經釋』, 葉霖의 『難經正義』, 黃元御의 『難經懸解』, 蔡陸仙의 『中國醫學匯海·難經』, 滕萬卿의 『難經古義』, 加藤宗博의 『虛經衷腋』, 凌耀星의 『難經校注』 등을 참고하였다.
3. 校勘은 각 인용문헌 중에서 원문의 글자와 다른 것을 조사하고, ○로 표기하였다.
4. 해석은 直譯을 위주로 하였다.
5. 강조해야 할 文句는 ‘ ’로 표기하였다.
6. 본문의 내용은 句節別로 나누고, 註家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 III. 本論 및 考察

### 1. 「七十五難」 본문 내용

1) 唐代 楊玄操의 六篇 분류를 따랐음(저자註).  
2) 김춘배. 『황제팔십일난경』중 침구치료편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대학원. 1997. p.100.  
3) 천병태. 난경의 성립과 역대연구에 관한 고찰. 대전대학교대학원. 1993. p.2.  
4) 조학준. 『난경』의 학술 성과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대학원. 1998. pp.13-14.  
5) 전국한의과대학 침구·경혈학교실. 침구학(하). 서울. 집문당. 1994. p.1129.  
6) 박사현, 신정철, 류충열, 조명래. 人迎氣口脈診法の 五行鍼 운용에 관한 고찰. 대한침구학회지. 2004. 21(4). p.155.  
7) 김춘배. 『황제팔십일난경』중 침구치료편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대학원. 1997. p.100.

8) 김주경, 손성철, 윤종화. 『난경』의 장부허실에 따른 침구보사법에 관한 연구. 대한침구학회지. 2001. 18(6). pp.240-249.  
9) 박은주, 조명래. 오행침법의 운용에 대한 『난경』 「육십구난」과 「칠십오난」의 비교 고찰. 대한침구학회지. 2001. 18(6). pp.250-263.  
10) 이종무, 조명래, 채우석. 난경 75년을 이용한 오행침에 관한 연구. 2001. 18(2). pp.123-135.  
11) 滑壽. 難經本義. 臺北. 旋風出版社. 1980. p.70.

七十五難<sup>①</sup>曰 經言東方實 西方虛 瀉南方 補北方 何謂也 然金木水火土 當更<sup>②</sup>相平 東方木<sup>③</sup>也 西方金也 木欲實 金當平之 火欲實 水當平之 土欲實<sup>④</sup> 木當平之 金欲實 火當平之 水欲實 土當平之 東方<sup>⑤</sup> 肝也 則知肝實 西方<sup>⑤</sup> 肺<sup>⑥</sup>也 則知肺虛<sup>⑦</sup> 瀉南方火<sup>⑧</sup> 補北方水<sup>⑧</sup> 南方火 火者木之子也 北方水 水者木之母<sup>⑨</sup>也 水勝火<sup>⑩⑪</sup> 子能令母實 母能令子虛 故瀉火補水 欲令金不<sup>⑫</sup>得平木也<sup>⑬</sup> 經曰 不能<sup>⑭</sup>治其虛 何問其餘 此之謂也

[校勘]

- ① 『難經古義』에는 「七十八難」에 수록되어 있다<sup>12)</sup>.
- ② 『太平聖惠方』에 ‘互’로 되어 있다<sup>13)</sup>.
- ③ 『中國醫學匯海·難經』에 ‘土’로 되어 있다<sup>14)</sup>.
- ④ 『校訂圖註難經』에 ‘水當平之 土欲實’이 없다<sup>15)</sup>.
- ⑤ 『校訂圖註難經』<sup>16)</sup>, 『難經經釋』<sup>17)</sup>, 『難經懸解』<sup>18)</sup>에 ‘東方者’, ‘西方者’로 되어 있다.
- ⑥ 『中國醫學匯海·難經』에 ‘肝’으로 되어 있다<sup>19)</sup>.
- ⑦ 『黃帝內經太素』에 ‘東方者 肝也 肝實 則知肺虛’로 되어 있다<sup>20)</sup>.
- ⑧ 『黃帝內經太素』에 ‘火’와 ‘水’자가 없다<sup>21)</sup>.
- ⑨ 『中國醫學匯海·難經』에 ‘木之子’로 되어 있다<sup>22)</sup>.
- ⑩ 『難經古義』에 ‘母能令子虛’ 다음에 있다<sup>23)</sup>.

12) 滕萬卿. 難經古義. 臺北. 旋風出版社. 1980. pp.64-65.  
 13) 凌耀星. 難經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p.128.  
 14) 蔡陸仙 編. 中國醫學匯海. 難經. 서울. 정보사. p.164.  
 15) 張世賢. 校訂圖註難經. 臺北. 文光圖書有限公司. 1982. p.17.  
 16) 張世賢. 校訂圖註難經. 臺北. 文光圖書有限公司. 1982. p.18.  
 17) 徐大椿. 難經經釋. 江蘇省. 江蘇科學技術出版社. 1985. pp.95-96.  
 18) 黃元御. 黃元御醫書十一種(上) 難經懸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669.  
 19) 蔡陸仙 編. 中國醫學匯海. 難經. 서울. 정보사. p.164.  
 20) 楊上善. 黃帝內經太素. 서울. 대성문화사. 1986. p.72.  
 21) 楊上善. 黃帝內經太素. 서울. 대성문화사. 1986. p.72.  
 22) 蔡陸仙 編. 中國醫學匯海. 難經. 서울. 정보사. p.165.

- ⑪ 『黃帝內經太素』에 ‘水以勝火’로 되어 있다<sup>24)</sup>.
- ⑫ 『難經懸解』에는 金 다음에 ‘不’자가 없다<sup>25)</sup>.
- ⑬ 『黃帝內經太素』에 金 다음에 ‘去’자가 있고, ‘平’자가 ‘干’字로 되어 있다<sup>26)</sup>.
- ⑭ 『難經懸解』에는 ‘得’으로 되어 있다<sup>27)</sup>.

[해석]

「七十五難」에 “經에 이르기를 동방이 實하고 서방이 虛하면 남방을 瀉하고 북방을 補하라.”라고 하였는데 어떤 이유인가?

그렇다. 金木水火土는 마땅히 갈마들어 서로 平하게 한다. 동방은 木이고, 서방은 金이다. 木이 實하고자 하면 金이 마땅히 그것을 平하게 하고, 火가 實하고자 하면 水가 마땅히 그것을 平하게 하고, 土가 實하고자 하면 木이 마땅히 그것을 平하게 하고, 金이 實하고자 하면 火가 마땅히 그것을 平하게 하고, 水가 實하고자 하면 土가 마땅히 그것을 平하게 한다.

동방은 肝이니 (동방이 實하면) 肝實을 알 수 있고, 서방은 金이니 (서방이 虛하면) 肺虛를 알 수 있으니, (이때 할 수 없이) 南方火를 瀉하고 北方水를 補해야 하니 남방은 火고 火는 木의 子며, 북방은 水고 水는 木의 母다. 水가 火를 勝하면 子는 능히 母로 하여금 實하게 하고, 母는 능히 子로 하여금 虛하게 하므로 瀉火補水는 金으로 하여금 平木을 얻을 수 없고자 함이다. 經에서 “그 虛를 다스릴 수 없는데 어찌 그 나머지를 물으리오?”라고 한 것은 이것을 이룸이다.

2. 句節別 고찰

「七十五難」은 오행이 相克으로 平을 유지한다는 부분과, 오행중 二行에 문제가 생겨 즉, 木實金虛하여 오행의 平을 유지할 수 없을 때 처방으로 瀉南

23) 滕萬卿. 難經古義. 臺北. 旋風出版社. 1980. p.65.  
 24) 楊上善. 黃帝內經太素. 서울. 대성문화사. 1986. p.72.  
 25) 黃元御. 黃元御醫書十一種(上) 難經懸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669.  
 26) 楊上善. 黃帝內經太素. 서울. 대성문화사. 1986. p.72.  
 27) 黃元御. 黃元御醫書十一種(上) 難經懸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669.

方 補北方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본문을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구절은 ‘金木水火土 當更相平’, ‘東方肝也 則知肝實 西方肺也 則知肺虛’, ‘水勝火’, ‘子能令母實 母能令子虛’, ‘瀉火補水’, ‘欲令金不得平木’, ‘不能治其虛 何問其餘’ 등이라 할 수 있고, 이들 구절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平’과 ‘勝’이라 하겠다.

### 1) 金木水火土 當更相平

『校訂圖註難經』에서 “更은 互하는 것이고, 平은 유여한 것을 去하는 것”<sup>28)</sup>이라 하였고, 『難經集註』에서 平은 “四方 虛實을 조절하는 법”<sup>29)</sup>이라 하였다.

金木水火土 오행은 갈마들어 서로 平을 유지한다. 본문에 “木이 實하고자 하면 金이 마땅히 그것을 平하게 하고, 火가 實하고자 하면 水가 마땅히 그것을 平하게 하고, … 水가 實하고자 하면 土가 마땅히 그것을 平하게 한다.”<sup>30)</sup>라고 하여 오행 중에 一行이 實했을 때 그것을 克하는 行이 제약함으로써 ‘平’하게 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難經本義』에 “한 藏이 平하지 않으면 勝하는 바로 그것을 平하게 한다.”<sup>31)</sup>라고 하였고, 『難經經釋』에서는 “갈마들어 서로 平하게 하는 것은 한 臟이 홀로 盛하여 病이 生하지 않게 함이고, 이는 오행 본연의 道”<sup>32)</sup>라고 하였다. 따라서 이 구절에서는 일반적인 오행간의 相克 이치를 설명하고 있다.

### 2) 東方肝也 則知肝實 西方肺也 則知肺虛

동방은 木에 속하고 肝에 속하고, 서방은 金에

속하고 肺에 속하므로, 東方實은 肝實이 되고, 西方虛는 肺虛가 된다.

또한 여기서 중요하게 살펴볼 점은 ‘東方實 西方虛 瀉南方 補北方’이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肝實肺虛에 대한 치법으로 瀉火補水를 제시했다는 점이다. 즉 自經, 他經의 虛實에 대해 母子補瀉를 제시한 「六十九難」과는 달리 五臟만을 치료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즉, 「七十五難」은 勝해야 할 肺는 虛하고, 勝을 받을 肝은 實해진 경우로, 이는 「五十四難」에 “藏病이 다스리기 어려운 것은 勝하는 바로 傳하기 때문이다.”<sup>33)</sup>, 「五十三難」에 “七傳은 그 勝하는 바로 傳한다. … 가령 心이 病을 肺로 傳하고, 肺는 肝으로 傳하고, 肝은 脾로 傳하고, 脾는 腎으로 傳하고, 腎은 心으로 傳한다. 한 藏은 거듭 傷하지 않으므로 七傳하면 죽는다고 말한 것이다.”<sup>34)</sup>라고 한 것과 연관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원리에 따르면 肝實肺虛는 金은 虛해서 肝을 勝할 수 없으므로 肝이 實해지는데, 이렇게 되면 肝은 病을 脾로 傳하고, 腎으로, … 七傳해서 결국 死에까지 이르게 될 수도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래서 瀉火補水 치료법을 제시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難經本義』<sup>35)</sup>에서 “瀉火補水는 越人の 妙로, 一舉兩得이다. 瀉火는 한편으로는 木의 氣를 빼앗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金의 克을 去하는 것이고, 補水는 한편으로는 金의 氣를 더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火의 光을 制하는 것이다.”라고 하여 瀉火補水가 木實金虛한 상황을 다스리는 妙法이라고 하였다.

### 3) 水勝火

水勝火는 “木之母가 木之子를 勝하는 것”<sup>36)</sup>이다.

28) 張世賢. 校訂圖註難經. 臺北. 文光圖書有限公司. 1982. p.18. “更 互也 平者 去其有餘也”  
29) 秦越人. 難經集註.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94. “平者 調四方虛實之法也”  
30) 滑壽. 難經本義. 臺北. 旋風出版社. 1980. p.70. “木欲實 金當平之 火欲實 水當平之 … 水欲實 土當平之”  
31) 滑壽. 難經本義. 臺北. 旋風出版社. 1980. p.70. “一藏不平 所勝平之”  
32) 徐大椿. 難經經釋. 江蘇省. 江蘇科學技術出版社. 1985. p.96. “更相平 … 不令一臟獨盛而生病也 … 此言五行本然之道也”

33) 滑壽. 難經本義. 臺北. 旋風出版社. 1980. p.53. “藏病所以難治者 傳其所勝也”  
34) 滑壽. 難經本義. 臺北. 旋風出版社. 1980. p.53. “七傳者 傳其所勝也 … 假令心病傳肺 肺傳肝 肝傳脾 脾傳腎 腎傳心 一藏不再傷 故言七傳者 死也”  
35) 滑壽. 難經本義. 臺北. 旋風出版社. 1980. p.70. “此越人之妙 一舉而兩得之者也 且瀉火 一則以奪木之氣 一則以去金之克 補水 一則以益金之氣 一則以制火之光”  
36) 徐大椿. 難經經釋. 江蘇省. 江蘇科學技術出版社. 1985.

水勝火하는 기전에 대하여 『難經正義』에 “무릇 火는 木의 子요, 水는 木의 母다. 瀉火하면 火가 衰해서 母氣를 盜洩하니 그 火勢가 減하여 金을 能멸할 수 없고, 補水하면 火氣가 점점 弱해져서 다시 木氣를 肅칠 것이니 故로 水勝火다.”<sup>37)</sup>라고 하였고, 『虛經衰腋』에서는 “水勝火의 要는 北方上을 補하는데 있다. 大개 補水하여 勝火하면 子의 氣는 馱주리므로 母의 유여함을 먹으니 木實이 스스로 平해지게 되고, 또한 金은 水의 助力을 얻어 西方 金虛 역시 회복된다.”<sup>38)</sup>고 하여 水勝火가 補水勝火하기 위한 要가 된다고 하였다.

인체에서 水勝火하는 요건은 「五十四難」과 같이 병리적 상황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와, 治法을 통하여 水勝火를 만드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본문에 肝實木虛 이외의 다른 상황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여기서는 鍼刺 또는 (특히) 藥物을 통하여 水勝火를 만든 것으로 생각되며, 水勝火에 대한 구체적인 본문 표현이 ‘瀉火補水’라고 사료된다. 『難經本義』에 四明陳氏는 “瀉火補水는 水로 하여금 火를 勝하게 하여 火가 馱주려서 木에서 氣를 얻게 되니, 木이 이에 減해져서 實하지 않게 된다.”<sup>39)</sup>라 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 4) 子能令母實 母能令子虛

子能令母實 母能令子虛에 대한 역대 醫家들의 의견이 분분한데, 그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難經本義』는 木을 기준으로 해서 子를 火로 보았고, 金을 기준으로 해서 水를 子로 보고, 火를 瀉해서 木을 抑하고, 水를 補해서 金을 濟한다고 하였고<sup>40)</sup>, “母가 能히 子를 實하게 하고, 子가 能히 母

를 虛하게 하는 것은 五行의 生化이고, 子가 能히 母를 實하게 하고 母가 能히 子를 虛하게 하는 것은 針家의 더하고 뺀 것을 말하는 것이니 진실로서 같은 것이 아니다.”<sup>41)</sup>라고 하여 子能令母實 母能令子虛가 「六十九難」의 虛則補其母 實則瀉其子와 다른 것이며 針家의 주고 뺀 것 즉, 補瀉法이라고 하였다. 『難經懸解』에서도 “火는 木之子니 子能令母實이기 때문에 瀉其子고, 水는 木之母니 母能令子虛이기 때문에 補其母이다. 瀉火補水하여 木氣가 不實하게 되면 金이 平을 얻을 수 있게 된다.”<sup>42)</sup>고 하여 子能令母實 母能令子虛가 肝實肺虛의 원인으로 보았고, 「六十九難」의 虛則補其母 實則瀉其子가 치법이 된다고 하였다.

『難經經釋』에서는 “木之子인 火는 木之母인 水가 克하는 바가 되니 水克火하면 火는 能히 水之氣를 益할 수 있으므로 子能令母實이라 하였고, 水克火하면 能히 火之氣를 빼앗을 수 있으므로 母能令子虛라”<sup>43)</sup> 하였다.

또한 『校訂圖註難經』에 子能令母實 母能令子虛에 대하여 “母能令子虛는 致病이고, 子能令母實은 治病이 된다.”<sup>44)</sup>고 하였고, 『難經古義』에서는 “子能令母實은 病因을 말하는 것으로, 子는 心이고 母는 肝이다. 母能令子虛는 治法을 말하는 것으로, 母는 腎이고, 子는 肝이다.”<sup>45)</sup>라 하여 子能令母實 母能令子虛가 病因과 治法이 된다고 하였으나 서로 의견이 상

抑其木 補水以濟其金 是乃使金得與水相停”

41) 滑壽, 難經本義. 臺北. 旋風出版社. 1980. p.71. “母能令子實 子能令母虛者 五行之生化 子能令母實 母能令子虛 針家之子奪 固不相侔也”

42) 黃元御, 黃元御醫書十一種(上) 難經懸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669. “火者木之子 子能令母實 故瀉其子 水者木之母 母能令子虛 故補其母 瀉火補水 使木氣不實 則金得平之矣”

43) 徐大椿, 難經經釋. 江蘇省. 江蘇科學技術出版社. 1985. p.96. “木之子火 爲木之母水所克 則火能益水之氣 故曰子能令母實 水克火 能奪火之氣 故曰母能令子虛

44) 張世賢, 校訂圖註難經. 臺北. 文光圖書有限公司. 1982. p.18. “子能令母實 母能令子虛 二句俱兼致病致病而言 母能令子虛 土爲金之母 土受木剋 不能生金 是致病也 水爲木之母 補水則能勝火 火勢退而水勢平 是治病也 子能令母實 火爲木之子 子助其母 使母過分而爲病 是治病也”

45) 滕萬卿, 難經古義. 臺北. 旋風出版社. 1980. p.65. “所謂子能令母實一句 言病因 子者心 母者肝 母能令子虛一句 言治法 母者腎 子者肝”

p.96. “木之母勝木之子也”

37) 葉霖, 難經正義.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1. pp.126-127. “夫火者 木之子 水者 木之母也 瀉火則 火衰而盜洩母氣 其火之勢減 亦不能凌金 補水則 火氣愈弱 更竊木氣 故曰水勝火也”

38) 加藤宗博, 虛經衰腋.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84. p.222. “水勝火 是要在補北方上 蓋補水而勝火 則子之氣餘 食母之有餘 木實自平 且金得水之助 而西方金虛亦復焉”

39) 滑壽, 難經本義. 臺北. 旋風出版社. 1980. p.70. “於是瀉火補水 使水勝火 則火餒而取氣於木 木乃減而不復實”

40) 滑壽, 難經本義. 臺北. 旋風出版社. 1980. p.71. “瀉火以

반되고 있다.

『難經集註』에서 虞庶는 “金虛에 補水禦火하면 水와 火가 木을 養하게 되어 安復하는 것을 子能令母實이라 하였고, 木이 유여하여 土를 畏하여 金이 虛해지는 것을 母能令子虛다.”<sup>46)</sup>라고 하여 子能令母實은 火(子)가 木(母)을 實하게 하는 관계로, 母能令子虛는 土(母)가 金(子)을 虛하게 하는 관계로 설명하고 있다. 이는 본문에서 제시한 火는 木의 子이고, 水는 木의 母라고 하는 대전제에서 벗어난 해석이라고 하겠다.

『盧經衷腋』에 “소위 子能令母實은 火가 木으로 하여금 實하게 하니 동방은 實하게 함을 말하는 것이므로, 上文에서 火는 木의 子라고 하였고, 소위 母能令子虛는 水는 木으로 하여금 虛하게 하니 治之를 말하는 것이므로, 上文에서 水는 木의 母라고 하였다.”<sup>47)</sup>라고 하여 子(火)가 母(木)를 實하게 한다고 하였는데, 이미 實한 肝을 왜 實하게 해야 하는지 적절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문에서 火는 木의 子이고, 水는 木의 母라고 했으므로, 子母가 火(南方, 心)와 水(北方, 腎)이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難經經釋』과 『難經正義』가 본말가 가장 충실하다고 생각되며, 「七十五難」은 水勝火의 기전의 결과가 ‘子能令母實, 母能令子虛’하게 된 것이므로, 木實金虛에 대한 치법은 瀉火補水이지, 子能令母實 母能令子虛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 5) 瀉火補水

「六十九難」과 「七十五難」은 이웃하는 行의 母子를 補瀉한다는데 비슷한 점이 있으나, 「六十九難」에서는 단순한 一行, 一經의 虛實 문제이고, 「七十五難」에서는 복합적으로 발생한 二行, 二臟의 虛實 문

제이므로 근본적으로 발생원인과 치법이 차이가 있다. 즉, 본문의 東方實 西方虛(肝實 金虛)는 五行중 二行에 문제가 발생했으므로 金이 虛하여 肝을 勝할 수도 없고, 정상적인 치법인 「六十九難」의 ‘虛則補其母 實則瀉其子’의 원칙에 따라 瀉火補土하면 瀉火는 金虛에 도움이 되나 補土는 木實하므로 木이 土를 勝해서 補金할 수 없는, 오행이 갈마들어서로 ‘平’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際萬卿은 “지금 東西를 버리고 南北으로 다스리는 것은 非經常之法이니, 儒家의 權法, 兵法의 奇法과 같은 것이다.”<sup>48)</sup>라고 하여 補水瀉火는 일시적이고, 非正常的으로 치법이라 하였으며, 『침구학』에서도 “東方實하여 西方虛할 때 瀉南方火하고 補北方水하는 특이한 방법을 택한 것은 정도의 治法이 아닌 一時的 치료”라고 하였다<sup>49)</sup>. 또한 사암침에서 政·勝格 寒·熱格의 네 가지 처방 외에 「七十五難」의 ‘瀉南補北論’에 근거한 A變形<sup>50)</sup> 등등 많은 변형이 있는데<sup>51)</sup>, 이것도 역시 정상적인 방법으로 치료할 수 없는 임상 예를 치료하기 위해 A변형과 같은 變法이 고안한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際萬卿은 “대개 肝의 亢極은 本因은 心火有餘니 子가 有餘하면 母氣를 食하지 않고, 肝木은 盛實하게 되고, 腎의 衰竭의 원인은 肺金不足과 관계되니 母가 부족하면 子氣를 돕지 않아서 肺金이 太虛하게 된 것이다.”라고 하여 肝實金虛의 임상 상황은 肝陽上亢, 腎水不足과 관계가 있다고 보고 補陰할 것을 주장하였다.

諸家들은 瀉火補水함에 있어 치료의 대상을 첫째 肝實金虛, 둘째 肝實, 셋째 補陰瀉陽 등으로 나눌

46) 秦越人. 難經集註.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94. “金虛者 乃補水禦火 補水養木 禦火火不平金養木 木亦安復 故曰子能令母實也 木有餘則 土乃畏木 土不能傳氣與金 金乃虛 故曰母能令子虛也”

47) 加藤宗博. 盧經衷腋.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84. p.221. “所謂子能令母實者 火令木實 言東方之所以實 故上文曰 火者木之子也 所謂母能令子虛者 水令木虛 言所以治之 故上文曰 水者木之母也”

48) 際萬卿. 難經古義. 臺北, 旋風出版社. p.65. “今乃棄東西而治南北者 非經常之法 猶之儒家有權 兵法有奇乎”

49) 전국한의과대학 침구·경혈학교실. 침구학(하). 서울, 집문당. 1994. p.1131.

50) 사암침법 조문 235개 중에 정승격·한열격 등 正形은 123개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變形 또는 경험방들로 구성되어 있다. 대표적인 변형으로는 「七十五難」의 瀉南補北論에 근거한 A변형, 「七十三難」에 근거한 B변형, 병증의 상황에 따라 他經絡 오수혈 사이에서 혈위를 이동하는 C변형 등이 있다(김달호, 김중환. 사암침법의 변형에 관한 연구. 한의학회지. 1996. 2. pp.337-380.).

51) 김제홍, 조명래. 五行鍼을 응용한 六氣鍼에 관한 연구. 대한침구학회지. 2003. 20(1). p.69.

수 있다. 첫째로, 肝實金虛하므로 瀉火補水를 주장한 醫家로는 滑壽, 張世賢, 加藤宗博 등이 있다. 『難經本義』에 “瀉火補水는 越人の 妙로, 일거양득이다. 瀉火는 한편으로는 木의 氣를 빼앗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金의 克을 去하는 것이며, 補水는 한편으로는 金의 氣를 益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火의 光을 制하는 것이다.”<sup>52)</sup>라고 하여 補土하는 것은 오직 金만을 도울 뿐이며, 두 가지 작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補土를 하지 않고 補水를 하는 것이라고 하였고, 『校訂圖註難經』에는 “瀉火補水는 金으로 하여금 不虛하게 하고 木이 不實하게 하고자 함이고, 木이 이미 不實하면 金은 木實이 없으므로 가히 平하게 할 수 있다. 金虛木實 그 要는 오직 瀉火補水가 있을 뿐이다.”<sup>53)</sup>라고 하였으며, 『虛經哀腋』에서는 “오행은 勝하는 바로 갈마들어 서로 平하게 하나, 金이 不及하니 木의 太過에서는 平하게 할 수 없다. 故로 瀉南方火 補北方水하여 平을 얻는다.”<sup>54)</sup>라고 하였다.

둘째로, 病을 肝實한 것을 중심으로 보고 ‘瀉心’을 주장한 의가로는 徐大椿, 葉霖, 王九思 등이 있다. 『難經經釋』에 「七十五難」 질문에 대한 大綱의 답으로 “「六十九難」의 瀉子法이다”<sup>55)</sup>라고 단언하며 瀉火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難經正義』에서 “이 章의 諸家들이 註를 설명함에 있어 모두 越人の 旨에 부족하고 도달하지 못하였고, 오로지 徐大椿의 『難經經釋』만이 근접했다. 지금 그 뜻을 취하여 위하여 편다. 지금 東方 肝이 實하고 西方 肺가 虛하니 金虛가 어떻게 平木을 할 수 있으리오! 다스림을 論함에 그 太過한 것을 抑하고 不及한 것을 扶해야 하므로 瀉南方火 補北方水라. 이는 ‘實則瀉其子’이

다.”<sup>56)</sup>라고 하여 瀉火補水의 실체는 實則瀉其子 즉, 瀉火라고 하였다. 또한 『難經集註』에서도 “楊玄操가 이르기를 … 用針하는 者는 診察할 때 그 候를 알고 모름지기 瀉心해야 하니, 心氣가 이미 통하면 肝氣가 復하고, 또한 腎에서 補하니 腎家가 氣를 얻어서 傳하여 肝을 養하니 肝氣가 이미 定해지면 肺가 復하지 않아도 平肝이 온다.”<sup>57)</sup>라고 하였다.

셋째로, 補陰瀉陽을 주장한 醫家로는 滕萬卿<sup>58)</sup>, 蔡陸仙 등이 있다. 『難經古義』에 “瀉火補水는 兩藥으로 병행하거나 先補後瀉를 이름은 아니고, 진실로 鍼石을 말한 것이니 補陰瀉陽에 응하는 것이 可하다. 湯液은 필요치 않으나 오로지 그 陰을 補하는 것은 힘쓸 일이니 水勝火 一句를 보면 가히 드러나 있다.”<sup>59)</sup>고 하였고, 『中國醫學匯海·難經』에는 “編者가 按컨대 本篇은 注家의 논설이 分분하다. 그러나 大旨는 하나이나 비교적 계통이 있고, 현명하게 말한 자는 오직 일본 의사 滕萬卿이다.”<sup>60)</sup>라고 하여 瀉火補水의 목적이 補陰에 있다고 보았다.

「七十五難」에서 제시한 치법인 ‘火瀉水補’의 원리에 대해서는 역대 醫家들의 다양한 해석이 있으나 『難經』 본문에서 명시한 ‘火者木之子也 … 水者木之母也 … 子能令母實 母能令子虛 故瀉火補水’의 내용을 따라 火瀉水補의 치법은 木實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듯하다. 子能令母實하니 子인 火를 瀉하고 母能令子虛하니 母인 水

52) 滑壽, 難經本義. 臺北. 旋風出版社. 1980. p.70. “一學而兩得之者也 且瀉火 一則以奪木之氣 一則以去金之克 補水 一則以益金之氣 一則以制火之光”  
 53) 張世賢, 校訂圖註難經. 臺北. 文光圖書有限公司. 1982. p.18. “瀉其火 補其水 欲令金不虛而木不實 木既不實 則金無木之實可平矣 金虛而木實 其要惟在瀉火補水而已”  
 54) 加藤宗博, 虛經哀腋.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84. p.222. “五行當以所勝更相平 今金不及 而不能平於木之太過 故瀉南方火 補北方水 斯得其平矣”  
 55) 徐大椿, 難經經釋. 江蘇省. 江蘇科學技術出版社. 1985. p.95. “此即六十九難瀉子之法”

56) 葉霖, 難經正義.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1. p.126. “此章諸家註說 皆未足達越人之旨 惟徐氏經釋 庶乎近焉 今就其義而引申之 … 今東方肝實 西方肺虛 金虛何能平木 論治當抑其太過 扶其不及 故曰瀉南方火 補北方水 此實則瀉其子也”  
 57) 秦越人, 難經集註.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94. “楊曰 … 用針者 診知其候 則須瀉心 心氣既通 肝氣則復 又補於腎 腎家得氣 傳而養肝 肝氣已定 則肺不復來平肝”  
 58) 滕萬卿은 그의 저서에 肝木實 肺金虛는 病의 所在이고, 瀉南補北은 瀉心火補腎水는 治가 歸하는 마라 하여 病因과 治法을 나누어 表함으로써 瀉南補北이 瀉火補水라고 한 說명도 있다.  
 59) 滕萬卿, 難經古義. 대북. 旋風出版社. p.65. “瀉火補水 此兩藥并行乎 將所謂先補後瀉邪 曰否 苟以鍼石言之 即應補陰瀉陽而可 若夫湯液 則不必然 唯其補陰是務 觀水勝火一句 可以見已 是亦此篇一大要語 不可忽略”  
 60) 蔡陸仙 編, 中國醫學匯海. 難經. 서울. 성보사. p.167. “編者按 本篇注者論說紛紜 然其大旨則一 較有系統而言顯明者 惟日醫滕萬卿氏”

를 補하는 것이 『難經』의 내용과 부합한다고 생각된다.

## 6) 欲令金不得平木

『難經本義』에서 “金不得平木 不字疑衍”이라 한 이래, 金이 平木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醫家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難經經釋』에는 “子能令母實하니 瀉子하면 火勢가 더욱 衰하여져서 水는 마음대로 克伐할 수 있고, 母能令子虛하니 補母하면 水勢가 아울러 旺해져서 火가 유여함이 감히 남아날 수 없다. 이와 같은 즉 火는 克金할 수 없고 반대로 木之氣를 먹어서 自給하니 金氣로 하여금 平할 수 있게 하고 木은 날로 衰해져서 金이 스스로 平木할 수 있게 된다. 不字는 諸家가 모두 衍文이다.”<sup>61)</sup>라고 하였고, 『難經懸解』에서 “瀉火補水하여 木氣가 不實하게 되면 金이 平을 얻을 수 있게 된다.”<sup>62)</sup>고 하였으며, 『難經正義』에서도 “본문 上下의 義를 보건대 子母 兩字는 모두 肝木을 就하여 말한 것이니, 木을 抑한 즉 金을 扶하는 것이다. 越人은 讀者가 잘못 이해할 것을 두려워하여 다시 그 뜻을 펴으니 ‘瀉火補水者 欲令金得以平木也’라 하였다. 만약에 金虛를 다스리는 법을 알지 못하고, 다만 一經으로서 補瀉하면 他病도 역시 다스릴 수 없다. 金 다음의 不字는 滑壽는 衍文이라고 하였는데, 삭제되어야 한다.”고 하여 瀉火補水를 하면 결과적으로 오행이 서로 평형을 이루므로 金이 平木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반면에 『黃帝內經太素』에서는 “金이 가고자 하나 木을 干할 수 없다”<sup>63)</sup>라고 하였고, 『盧經哀腋』에서는 “만약 서방이 不虛하다면 그 勝하는 바로써 金은 平木하겠으나, 바야흐로 지금은 西方虛하니 木實하여 반대로 不勝하는 바를 侮하니 金이 그것을 平

하게 하고자 하나 不可하다. 고로 補水勝火의 수단을 用하여 金으로 하여금 곧바로 平木을 쓸 수 없게 하였다.”<sup>64)</sup>라고 하여 滑壽 등의 醫家와는 다른 견해를 밝히고 있으며, 『難經校注』, 『難經今釋』도 不字를 衍文으로 보지 않아도 해석이 된다고 하였고<sup>65)</sup>, 또한 四明陳氏는 “金이 平木할 수 없는 것은 곧장 金으로 木을 平하게 할 수 없으니 반드시 瀉火補水로 旁治하면 木金氣가 자연히 兩平하게 될 따름이다.”<sup>66)</sup>라고 하여 金이 직접 平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瀉火補水의 旁治를 하면 木金이 스스로 平해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七十五難」은 木實金虛하여 金이 木을 平하게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瀉火補水로 木實金虛를 해소하고자 함이지, 金虛를 補해서 平木하고자 함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또한 瀉火補水는 常法이 아닌 일시적인 奇法이므로, 그 다음 상황이 어떻게 될 지는 알 수 없다고 추측되므로, ‘不平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本義』에서 九峰蔡氏도 “常만 알고 變을 모르는 자에 대한 警戒라고 하였고, 이 篇의 大意는 肝實肺虛에 瀉火補水하는 것이다.”<sup>67)</sup>라고 지적하고 있다.

## 7) 不能治其虛 何問其餘

본 구절은 何問其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主안점이 肝實이 될 수도 있고, 金虛가 될 수도 있다. 『校訂圖註難經』에 “진실로 혹은 虛를 다스리는 要를 얻지 못하면 어찌 필히 그 나머지를 施治하는 법을 다시 물을 수 있겠는가!”<sup>68)</sup>라고 하였고, 『難經經釋』에서 “金虛를 治하는 법을 말한 것이 마땅히

61) 徐大椿. 難經經釋. 江蘇省. 江蘇科學技術出版社. 1985. p.96. “子能令母實 瀉子則火勢益衰 而水得以恣其克伐 母能令子虛 補母則水勢并旺 而火不敢留其有餘 如此則火不能克金 而反抑食木之氣以自給 使金氣得伸 而木日就衰 則金自能平木也 不字諸家俱以爲衍文”  
62) 黃元御. 黃元御醫書十一種(上) 難經懸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669. “瀉火補水 使木氣不實 則金得平之矣”  
63) 楊上善. 黃帝內經太素. 서울. 대성문화사. 1986. p.72. “欲令金去 不得干木”

64) 加藤宗博. 盧經哀腋.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84. p.222. “西方若不虛 則以其所勝 金當平木 方今西方虛 則木實反侮 所不勝 金欲平之 不可得也 故用 此補水勝火之手段 使金不得用徑平木耳”  
65) 韓수 원주. 윤창열, 이남구, 김선호 편역. 難經本義. 대전. 주민출판사. 2003. p.319.  
66) 滑壽. 難經本義. 臺北. 旋風出版社. 1980. p.71. “所謂金不得平木 不得徑以金平其木 必瀉火補水而旁治之 使木金之氣 自然兩平耳”  
67) 滑壽. 難經本義. 臺北. 旋風出版社. 1980. p.71. “蓋爲知常而不知變者之戒也 此篇大意 在肝實肺虛 瀉火補水上”  
68) 張世賢. 校訂圖註難經. 臺北. 文光圖書有限公司. 1982. p.18. “苟或不得治虛之要 何必更問其餘施治之法焉”

이와 같으니, 단지 一經을 取하여 補瀉하는 것은 불가하다.”<sup>69)</sup>, 『盧經稟賦』에 “補水勝火의 수단을 用하여 金으로 하여금 곧바로 平木을 쓸 수 없게 하였으니, 이 虛를 다스리는 법의 公교로움과 묘함을 醫子는 깨달아야만 한다.”<sup>70)</sup>하여 金虛를 중심으로 瀉火補水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凌耀星은 ‘不能治其虛 何問其餘’을 이용하여 瀉火補水 중에서 補水를 더욱 강조하였으니, 虛를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임상적으로 肝實肺虛·木火刑金의 病證은 드물지 않게 볼 수 있고, 치법으로 腎水를 補하는 것 위주로 하고 心肝의 火를 清하게 하는 것을 겸하는 것을 사용하면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다<sup>71)</sup>고 하였다.

따라서 『七十五難』은 金虛를 치료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그 치료법으로 瀉火補水를 택하였기 때문에 結句에 이와 같이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 IV. 結論

『七十五難』의 東方實 西方虛에 대한 治法에 대하여 역대 註家들의 견해를 중심으로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七十五難』은 『六十九難』과 더불어 母子補瀉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難으로, 五行 중 二行에 발생한 상황 즉, 木實金虛에 瀉火補水하는 치료원칙을 제시하여 후세에 본초, 방제 운용에도 활용되고 있는데, 이는 『內經』의 이론을 계승하지 않은 『難經』만의 독특한 이론이다.
2. 『七十五難』은 오직 五行과 五臟의 허실관계에 대한 治法만을 언급하고 있어, 經絡의 虛實補瀉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六十九難』과는 구별된다.
3. 木實金虛에 瀉火補水하는 治法은 정상적이지 않고 一時的으로 사용되지 않는 奇法·變法·權法으

로, 사암침법에서도 변형중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子能令母實 母能令子虛는 瀉火補水를 하기 위한 기전이지 치료원칙은 아니다.

4. 역대 醫家 중에서 滑壽·張世賢·加藤宗博 등은 肝實肺虛하므로 瀉火補水해야 한다고 하였고, 徐大椿·葉霖·王九思 등은 肝實하므로 瀉心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藤萬卿·蔡陸仙 등은 補陰瀉陽해야 한다고 하였다.

5. 『七十五難』에서 瀉火補水는 金虛의 관점에서 木實金虛를 해소하는 治法이고, 金克木하는 치법은 아니므로 ‘欲令金不得平木’에서 不字는 衍文이라고 볼 수 없다.

#### 參考文獻

<논문>

1. 김춘배. 『황계팔십일난경』중 침구치료편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대학원. 1997. p.100.
2. 천병태. 난경의 성립과 역대연구에 관한 고찰. 대전대학교대학원. 1993. p.2.
3. 조학준. 『난경』의 학술 성과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대학원. 1998. pp.13-14.
4. 박사현, 신정철, 류충열, 조명래. 人迎氣口脈診法の 五行鍼 운용에 관한 고찰. 대한침구학회지. 2004. 21(4). p.155.
5. 김주경, 손성철, 윤종화. 『난경』의 장부허실에 따른 침구보사법에 관한 연구. 대한침구학회지. 2001. 18(6). pp.240-249.
6. 박은주, 조명래. 오행침법의 운용에 대한 『난경』 「육십구난」과 「칠십오난」의 비교 고찰. 대한침구학회지. 2001. 18(6). pp.250-263.
7. 이종무, 조명래, 채우석. 난경 75년을 이용한 오행침에 관한 연구. 2001. 18(2). pp.123-135.
8. 김달호, 김중환. 사암침법의 변형에 관한 연구. 한의학회지. 1996. 2. pp.337-380.
9. 김재홍, 조명래. 五行鍼을 응용한 六氣鍼에 관한 연구. 대한침구학회지. 2003. 20(1). p.69.

<단행본>

1. 전국한의과대학 침구·경혈학교실. 침구학(하).

69) 徐大椿. 難經經釋. 江蘇省. 江蘇科學技術出版社. 1985. p.96. “治金虛之法 當如此 不可止取一經以爲補瀉也”  
 70) 加藤宗博. 盧經稟賦.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84. p.222. “故用此補 水勝火之手段 使金不得用徑平木耳 是治虛法之巧而妙者 爲醫不可不曉也”  
 71) 凌耀星. 難經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p.129.

- 서울. 집문당. 1994. p.1129, pp.1131-1132.
2. 滑壽. 難經本義. 臺北. 旋風出版社. 1980. p.53, pp.70-71.
  3. 滕萬卿. 難經古義. 臺北. 旋風出版社. 1980. p.65.
  4. 凌耀星. 難經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pp.127-129.
  5. 張世賢. 校訂圖註難經. 臺北. 文光圖書有限公司. 1982. pp.17-18.
  6. 徐大椿. 難經經釋. 江蘇省. 江蘇科學技術出版社. 1985. pp.95-96.
  7. 黃元御. 黃元御醫書十一種(上) 難經懸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669.
  8. 蔡陸仙 編. 中國醫學匯海. 難經. 서울. 성보사. pp.164-167.
  9. 楊上善. 黃帝內經太素. 서울. 대성문화사. 1986. p.72.
  10. 秦越人. 難經集註.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p.94-95.
  11. 葉霖. 難經正義.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1. pp.126-130.
  12. 加藤宗博. 盧經衷腋.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84. pp.219-222.
  13. 滑壽 원주. 윤창열, 이남구, 김선호 편역. 難經本義. 대전. 주민출판사. 2003. p.319.